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성경: 창세기 47장 7-10절

Tag: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47:7-10)

오늘 말씀은 야곱이 바로앞에서 바로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지 9년이 지났다.

요셉은 가족의 최고 고령자이며 어른인 아버지를 바로왕 앞에 알현하게 하였다. 이미 앞서 형들과의 알현에서 어디에서 살지, 무엇을 하고 살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였으며, 식구들 중 축산업이 뛰어난 사람들은 관리로 임명해서 왕의 소유 가축들을 보살피도록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애굽은 말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다. 후에 애굽의 말이 이끄는 전차부대는 유명하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다.

야곱은 인사말을 하면서 바로왕을 축복하였다.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축복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아마도 ‘요셉을 총애하시어 국무총리로 임명하신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장수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도 였을 것이다. 일종의 덕담이자, 인사말 정도의 수준인 셈이다.

어쩌면 이런 말은 야곱의 신앙고백인 셈이다.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경험한 야곱의 고백이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를 천민 취급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신분이 낮은 사람이 바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는 모습은 매우 특이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당시 바로왕은 요셉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고 있었고, 익히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쳐서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었기에 야곱의 축복은 매우 감동적으로 바로왕에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자 바로왕은 갑자기 야곱의 나이가 궁금해져서 나이를 물었다. 그런데 야곱은 영똥하게 자기의 이력을 이야기 하였다.

‘나의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 이 세월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그리 긴 세월은 아닙니다.

당시 야곱은 130세 (147세에 죽음. (130+17))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요셉 110세)

유목민 생활 자체가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삶이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유약한 세월; 팔죽을 쑤던 세월. 형 에서와 달리 남성스럽지 못한 야곱.

급기야 어머니 리브가는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야곱을 위한 **장자의 축복 가로채기**를 시전한다.

당시 에서는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에서는 장자의 기름부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가업을 잇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 번성한 민족이 되어야 할 아들이 필요하였다. **이런 절체절명의 가업을 이어받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축복의 시간에 엄마와 아들이 짜**

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배반하고 축복을 가로채는 모험을 하였다.

이삭으로서서는 성격상 도저히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리브가 또한 남편의 성품을 잘 아는고로 에서에게 마땅히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임신했을 때 받은 예언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었다.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25:23)

일종의 암묵적인, 야곱의 운명이 걸린, 앞으로 닥치게 될 파란에 대해 결연한 각오가 담긴, 신앙적 결단이 실행에 옮겨졌다.

(이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팔죽 한 그릇으로 사지 않았나? 어차피, 리브가는 자기 고향으로 야곱을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신붓감을 구해 오면 될 일.)

-꼭 이렇게 해야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나, 리브가로서는 안수로 인한 축복을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일.

-당사자 에서가 울면서 애통해 한 일. 그러나 그는 에서답게 야곱을 죽일 계략을 꾸미게 되고, 그 일은 리브가에게 들통나게 된다.

-일종의 영적 전쟁이었다.

-당시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결정으로는 마땅히 에서가 가업을 잇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에서는 부모의 영적인 신앙전통과는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함부로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며, 결정적으로는 에서가 데려온 며느리가 리브가의 입장을 지르고 있는 중이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야

굽을 통한 가업 승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명이 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야곱은 먼 길을 떠나야 했고, 뻔셀에서는 곤한 여정 중 잠이 들었을 때 천사가 오르내리는 사다리 환상을 보게 되었다.

-가장 심난하고 처참한 인생 중에 야곱은 하나님의 신비한 환상 체험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계약은 에서보다 더 짓궂은 것이어서 그는 삼촌에게 사기결혼을 당하고 14년을 바치는 수모를 겪는다. 집 떠나면 고생이요, 친척이 곧 원수였다.

-그러나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 헌신하며 그 긴 세월을 수일처럼 지내며 후회 없이 청춘을 불살랐다.

-그 후로 형과의 감격스런 재회가 있었고, 그 직전에 천사와의 씨름도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야곱이 일순위로 챙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제 야곱은 비록 땅도 집도 없었지만, 가산은 많았고, 자녀들과 노복들도 심히 많았다. 고향을 떠났을 때의 상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금의환향이라는 부푼 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과의 재회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었다. 왜냐면 형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형은 노략하기 위해서 군사를 몰고 오고 있었다. 야곱으로서는 갖은 피를 짜 내 본들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였는지, 왜 천사는 야곱을 이기려 하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왜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

하지 못했을까? 왜 그는 그토록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결국 천사는 야곱의 엉덩이뼈(장골)에 붙어있는 힘줄을 쳐서 발을 절뚝이게 한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형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는 이제 마지막 수단인 도망도 가지 못하게 된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 가장 필요했다.

-야곱의 인생은 지나고 나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순간 순간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고,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고, 하지 않아도 될 긴장을 하며 살아간다.

-물론 주변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나를 괴롭히는 일진들이 늘상 존재한다. 에서가 그랬고, 라반이 그랬고, 두 아내의 아들 다툼이 그랬고, 세겔족속이 그랬고, 나중에는 자녀들이 그랬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 도우심을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 우리의 일생을 구원하신다. 순탄하게 하신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시고, 병들었을 때 낫게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다. 삶의 순간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요, 더 복된 삶을 향한 도약이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말의 의미였다. 야곱은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다. **(성격탓? 아니다, 마귀가 그를 그만큼 괴롭혔다.)**

야곱은 이런 신앙고백에서 바로를 축복한 것이다. 과거 천사가 자기를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사랑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요

셉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절감하며, 요셉을 신뢰하는 바로왕이 너무 고맙고도 반가워서 자신이 받았던 복을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이다.

바로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더니 자기도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원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재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8절

Tag:

1 이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데살로니가의 폭도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함.)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5 이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 이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전 3:1-8)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는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드 코로나 시대.

순천향 대학병원 이은혜 교수의 연구가 도움이 되었다.

왜? 종식할 방법이 없기 때문. (메르스와 다르다. 치명적이지 않다. 감염력이 증가할 뿐-대신 빨리 전파되어 감기처럼 된다.)

-감기와 다른 점은? 아마 자연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일 것이다.
(감기는 약먹고 치료 받으면 2주만에 낫고, 그냥 냅두면 15일 만에 낫는다? ^^)

-코로나는 감기와 다르게 진행되면 과도한 면역반응이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받고, 항 바이러스제 치료를(지금까지 치료제는 없음;하이드록시클로로퀸-트럼프가 극찬함. 아연을 동시에 섭취, 한국, 독일, 터키등에서 사용. 좋은 효과를 봄. 단 초기에 효과가 큼. 미국에서는 사용 못하게 됨. -제약업계의 카르텔.) 받으면 폐렴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줄어든다. 그러면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감기는 후기반응이 없다.

-백신의 효과도 바로 이런 반응을 유도하는 것. 백신이 곧 치료제 아님. 감염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도 없음. 다만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효과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 (다만 백신이 RNA 형이기 때문에 주저하게 됨. 굳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접종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거의 미약하기 때문.)

자료 1) 4차 유행은 거짓말이다.

왜: 6월28일에 인천 연수구를 재검표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결과물이 쏟아짐. 그 이후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게 됨.

자료 2) 검사건수가 많아 확진자가 늘어남

자료 3) 양성율은 확진자 중 실제로 전파가 가능한 자

자료 4)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 1이하가 정상

-그런데 정치 방역은 떨어지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함.

자료 5) 연령대별 치명율

자료 6) 백신접종 예방효과

재난의 두려움을 이겨라

숨지 말고 당당하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피지기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